

학생 주도적 영재 캠프 프로그램 개발

이 경 속

순천향대학교

본 연구는 2009년과 2010년 여름에 실시된 충남 인문 영재 학급의 연합 캠프 분석이다. 캠프 주제에 대한 학생의 사전 공부, 학생 개인별 프로젝트 연구 주제 선정 및 연구 계획서 작성, 캠프 후 그 연구 계획서에 따른 창의적인 산출물을 제작하는 학생 주도적 캠프 방법은 영재 학생들의 인지적 만족에 효과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형 캠프는, 교사나 다른 영재 학생들과의 친밀감을 증가시키며, 2학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기대감 및 정서적 평안함이 증가되는 것으로 설문 결과 나타났다. 캠프를 위한 교사의 준비 정도, 학생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정도, 그리고 학생 개인의 사전 준비 정도가 학생들의 캠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영재 교육 및 연수 경험 정도에 따라 영재 학생에 대한 이해 및 캠프를 통한 영재아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교사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프로젝트, 자기 주도성, 교사의 피드백, 교사의 영재 교육 및 연수 경험, 사회적, 정서적 발달

I. 서 론

우리나라의 영재 교육은 과학, 수학영역을 중심으로 영재 교육 과정과 영재성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구, 개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인간 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과학, 수학의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외에도, 정의, 평등, 인간관계, 가치, 도덕, 역사, 문화, 미 등의 인문적이며 추상적 내용에 대한 이해와 여러 입장을 고려하면서 분석, 비교하여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력을 요구한다. 사람과 사회에 관련된 영역에서 복잡하고, 추상적이면서 객관화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한 문제 해결력 및 이런 영역에서의 리더십 개발을 위해서는 수학, 과학 영역과는 다른 인문 영역에서의 영재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장상

호, 1982).

영재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국의 영재 교육은 영재 교육 시행법이 시행되어 온 후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지만, 그 연구들의 대부분은 수학과 과학영역에만 치중하여 수행되어 오고 있다. 방학 중에 실시되는 캠프와 관련해서도 수학과 과학 영역의 영재 학급이나 영재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만이 한정되어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제로 캠프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설명은 있지만, 이 프로그램들 간의 상호 비교나 효용성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없는 현실이며, 인문 영재 분야는 더 더욱 그러하다. 이런 필요성으로 인해 본 연구는 2009년과 2010년 여름 충청남도의 인문 영재 학급들의 연합 캠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연구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문 영재 캠프의 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문 영재 학급의 캠프에 대한 분석이다. 인문 영재 캠프는 어떤 계획과 절차를 통해 준비되어지며, 그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며, 영재 교사와 영재 학생들의 필요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 관찰적 연구방법(Spradley, 1980)을 사용하였다. 캠프의 모든 준비 및 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관찰, 인터뷰, 서술식 설문지와 같은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삼각 측정(Triangulation)을 사용하였다(Erlandson, Harris, Skipper, & Allen, 1993). 또한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저자의 연구 목적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캠프의 모습을 조사하고자 노력했다.

둘째 캠프가 영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영재 학생 간에 그리고 영재 학급 간에 있어서 캠프의 효과성에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떤 변인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캠프에 있어 교사의 어떤 변인이 캠프의 효과성에 있어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자가 제작한 교사용, 학생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t 검정과 다 변량 분석, 사후 대비 분석을 SPSS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학생 설문지는 인적 내용과 5점 리커드 척도로(전혀 아님~매우 그러함) 구성된 캠프에 대한 평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내용은 성별, 학년, 영재 학급 명, 캠프 참여 경험 유무, 영재 교육 받은 년 수가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평가 내용은 캠프를 위한 개인 준비 정도, 캠프를 통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대한 기대 정도, 개인별 프로젝트 준비 시간, 교사의 피드백 정도, 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을 설문하고 있다. 교사용 설문은 인적 내용과 캠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내용에는 성별, 교직 년수, 영재 학급 교직 년 수, 영재 교육 연수정도(기초, 심화, 전문가 과정), 영재 교육 관련 과목 수강 유무(대학, 석사, 박사 과정)등이 포함되어 있다. 캠프에 대한 평가 내용은 5점 리커드 척도 문항으로(전혀

아님~매우 그러함) 캠프를 위한 교사의 개별 준비 시간, 학생의 프로젝트에 대한 피드백 시간 및 정도, 캠프가 영재 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기대, 캠프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 조사는 캠프의 마지막 날, 최종 프로그램이 끝난 뒤, 영재 학급별로 10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실시되어 수집되었다.

셋째 바람직한 인문 영재 캠프 또는 영재 캠프의 방향성 제시이다. 관찰과 인터뷰의 참여 관찰적 연구 방법과 설문지의 통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인문 영재 캠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캠프의 만족도와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영재 캠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III. 영재 캠프에 대한 이론적 배경

KEDI 영재 교육 보고서(이정규 외, 2007)에 나타난 영재 캠프 실시 현황은 영재 학급의 경우 360개의 영재 학급 중 278개의 학급이(77%) 캠프를 실시하였고, 영재 교육원의 경우 276개 중 239개의 영재원이(88%) 일 년에 1회 캠프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울은 다른 지역에 비해 캠프 실시가 낮지만, 그 외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영재 학급 및 영재원에서는 방학 기간에 영재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캠프는 교실이라는 제한적이고 폐쇄된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권치순 외, 2007). 미국의 경우, 긴 여름 방학을 이용하여 다양한 영재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특징에 따라 캠프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속진을 내용으로 하는 캠프이다. 수학과 과학 중심의 SMPY에서 출발하여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매년 여름에 실시하는 ‘Center for Talented Youth (CTY)’ 영재 프로그램은 기존에 운영되어 온 수학, 과학영역이외에도 인문 영역을 추가하여, 이 영역들에서 영재 개인들의 인지 필요 및 속도에 맞추어 진행되는 속진의 대표적 예인 캠프라 하겠다(Stanley, 1996).

둘째는 심화를 내용으로 하는 캠프이다. 텍사스 주 어스틴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운영하는 ‘Summer Institute for the Gifted’ 캠프는 심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의 기초가 되는 도서관 사용 및 연구 방법, 자료 조사 방법을 배우고, 학생 개별적인 깊은 학문적 연구를 통한 산출물을 캠프 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학문 영역에서 비슷한 관심, 동기, 연구,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학문적 수월 및 사회적, 정서적 성장을 목표로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March 22, 2010, retrieved from <http://www.giftedstudy.org/residential/utaustin/index.asp>).

셋째는 재능 발견 및 진로 개발을 위한 캠프이다. 다양한 영역, 예를 들자면 방송 프로듀서, 법조인, 건축가, 컴퓨터 프로그래머, 희곡 작가 및 연극배우, 악기 연주가 및 작곡가, 과학 범죄 수사대(CSI), 수의사 등 다양한 흥미 영역을 선택하여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

하는 여름 캠프이다. 다중 재능성(multipotentiality)을 지닌 영재아들의 특성으로 인해 청소년기에 진로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Colangelo, 1991), 영재아들에게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여름 캠프인 ‘Youth Adventure Program (YAP)’은 초등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1주일의 기숙형 영재 프로그램이다. 작곡 및 연주, 창의적 대본 만들기와 연극하기,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 애니메이션 제작, 수의학, 리더십 개발, 법의학, 건축 등 영역에서 다양한 직업 및 재능 영역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의성 향상을 목표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October 15, 2011, retrieved from <http://www.youthadventureprogram.com/>). 아이오와 주립대학에서 실시하는 초등학생을 위한 CHES (Challenge for Elementary Students)와 중고등학생을 위한 Belin-Blank Center Summer Program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학습 제공뿐 아니라 캠프 기간 동안 부모 교육 및 상담도 함께 실시하여 영재아 뿐 아니라 영재 자녀를 둔 부모의 필요도 충족시켜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는 일대일 멘토링을 내용으로 하는 캠프이다. 방학동안 대학교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영재아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학자등과의 개별적 만남을 주선하고, 공동 관심 주제 및 내용에 대해 함께 연구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재아의 개별적 인지 필요를 충족시켜 주며, 멘토와의 만남을 통한 사회적, 정서적 지지도 영재 학생에게 제공하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멘토링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실시함으로써, 거리의 장벽과 시간을 뛰어넘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있다. The Illinois Mathematics and Science Academy (IMSA)는 수학, 과학영역에서 일대일 멘토링, 웹을 사용한 튜터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Freeman, 2002). Rena Subotnik을 중심으로 미국 심리학회에서 운영하는 Pinnacle Project model이라는 프로그램도 여기에 속한다. 과학 영역 뿐 아니라 예술 및 신문 방송학에 있어서의 전문가와 학생을 연결한 프로그램으로서, 노벨상 수상자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 제작자, 베스트셀러 작가 및 학문적으로 뛰어난 유명 교수들과 개인적 또는 집단적 튜터링을 통해 영재 학생들의 개인적 프로젝트에 대한 토론 및 피드백을 해 주도록 운영하였다(Subotnik, 2005).

Feldhusen은 영재들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여덟 가지로 열거하였다.

1. 인지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도전적 교수 활동
2. 정규 수업의 속도 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
3. 보다 높은 교수 기술 및 보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 수준의 교수
4. 영재 학생들의 특별한 재능, 적성, 능력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확증
5.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기대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재능 있고, 지식 있는 교사
6. 도전적이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동료들과의 상호 작용
7. 정규 학교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는 다양한 주제, 학문 영역, 내용
8. 심도 깊은 연구, 관찰 조사 실행 및 아이디어를 창의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기회

(Feldhusen, 1991, p. 197)

영재 캠프는 Feldhusen이 언급한 영재들의 필요를 만족시키며, 교실에서 진행되는 정규 영재 수업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색다른 학습 환경 및 경험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영재 교육과정의 하나이어야 한다. 지역 영재 학급 및 교육청과 대학 부설 영재 교육원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규칙적이고 구조화된 틀 속에서 설계, 교육 진행이 된다면, 캠프는 일 년 프로그램 중 작은 한 부분이지만, 내용이 보다 자유로우며, 특별 목표를 가지는 특성이 있다. 단기간 동안 실시되는 영재 캠프는 특별히 청소년기의 영재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동기 부여 및 도전감을 제공하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던 재능 영역을 발견하거나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도 있다(Olszewski-Kubilius & Lee, 2004). 따라서 영재 캠프에서 명시적 목표로 설정된 것은 아니지만, 캠프 전보다 자아 개념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처럼(Kolloff & Moore, 1989; Plucker & Stocking, 2001; Rinn, 2006) 영재 캠프는 영재 학생들의 자아개념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재 캠프는 인지적 측면에서는 숙진의 도전적 내용을 제공할 수도 있고 또한 심화적인 내용 모두를 다룰 수 있다. 즉 인지 내용면에서 폭과 깊이를 모두 다룰 수 있으며, 좋은 교수와 실제적 체험의 기회를 영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인지적 필요와 관심을 가진 또래 영재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지내며 활동하는 것을 통하여, 공감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장을 제공함으로써, 영재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Olszewski-Kubilius, 2003).

IV. 2009년 충남 인문 영재 연합 캠프

1. 준비 과정

2009년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2박 3일의 여정으로 충남에 있는 지역 인문 영재 학급 9개 학급과 충남에 소재한 S 대학교 인문 영재원에 있는 5개 학급이 참여하여 인문 영재 연합 캠프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참여 총 인원은 초등학생 218명, 중학생 34명, 교사 27명, 보조 교사 2명 등이 참여하였다. 천안, 아산, 보령, 논산, 계룡, 당진, 서산 등 여러 지역에 있는 인문 영재학급이 참여하였다. 캠프를 위해서 5월에 각 단위 영재 학급의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주제 선정 및 캠프 책임 영역들을 분배하였다. 대학의 인문영재원이 중심이 되었지만, 모든 학급이 함께 진행 내용을 정하고, 책임을 분담하며,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하였다. 주제는 “선인의 창의적 자취를 찾아 떠나는 나의 문화유산 답사(약칭 ‘선문답’)”로 선정하였다. 유홍준(1993)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각 1, 2, 3권에 나오는 충청 및 전라도의 일부 지역을 선정하여, 탐방하기로 정하였다. 탐방 지역 선정 기준은 한국의 문화, 역사, 예술, 건축, 문학, 창의성을 보여 줄 수 있는 장소와 인물을 중심으로 하며 일정에 맞추어 거리 이동이 가까운 곳들을 묶어서 견학 장소로 선정하였다. 일정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 예산 수덕사와 전주 한옥 마을, 둘째 날, 담양의 소재원과 한국 가사 문학관, 강진의 고려청자 도요지, 영랑생가, 다산 초당, 셋째 날, 고창 지역에 있는 고인돌 유적지, 선운사와 미당 시문학관과 동학 혁명과 관련하여 고부의 전봉준 생가 및 고

부성 관아지로 정하였다. 특히 전주의 한옥 마을에서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전주 한옥 마을 일대를 탐방하도록 계획하였다.

가. 캠프 목적

이 캠프의 목적은 첫째는 답사를 통하여 학생 스스로가 우리의 자연, 문화, 예술, 역사 등에 대해 학생들 자신이 직접 보고, 느껴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의 아름다움, 정신, 혼, 뿌리 등을 발견하는 것이다. 수동적인 가르침을 통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이 질문을 품고,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발견하고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는 자기 주도적인 연구 능력의 개발이다.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에 탐방할 지역을 유홍준의 저서를 바탕으로, 인터넷에서 자료를 사전 조사하고, 견학 장소에 대한 홈페이지를 미리 읽어 보고 살펴봄으로써, 자신이 이 캠프 기간을 통해 알고 싶어 하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 및 주제에 대한 연구 방법들과 캠프 후 연구 결과로 제출할 산출물의 형식 등을 캠프 전에 계획하여 연구 계획서를 자신이 속한 영재 학급 교사에게 캠프 전에 제출하고, 영재 학급 교사에게 피드백을 받도록 하였다. 산출물의 형식에서는 표현 형식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창의적 산출물로 결과물을 소논문으로 써 보거나 컴퓨터나 미디어를 사용한 다양한 형태로 산출물을 제작하도록 격려했다. 끌려 다니는 답사가 아닌, 학생들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시작하는 답사를 목적으로 삼았다. 셋째는 충남 지역에 있는 영재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의 장이 되어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자극을 상호 받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넷째는 답사에서 느낀 것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문 영재의 소양 및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다. 다섯째 영재 교사들의 정보 교환이다. 실제 영재 학급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경험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영재 학급 및 교사들 간의 협력

답사 장소와 관련된 역사, 인물, 건축, 문학, 예술 등에 대한 연구를 캠프의 내용으로 하였다. 산출물은 학생의 흥미, 관심에 따른 개인 주도성을 강조하는 캠프의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스스로가 계획,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들이 공동으로 답사지에 대한 자료 정리 및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학생 활동지, 캠프 중 답사하는 장소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및 기록을 할 수 있는 활동책자 및 학생들의 산출물에 대한 지도안과 산출물에 대한 평가 기준을 함께 만들었다. 산출물에 대한 공정한 평가 및 학생 주도적 산출물 제작을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주제를 정하고, 연구 계획을 수립하며, 추진하여 산출물을 만들 수 있도록 교사의 역할을 조력자로서 규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캠프 기간 중 레크리에이션도 영재 캠프의 한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레크리에이션 대행업체에 의뢰하였고, 영재 학급의 교사 3명을 선정하여, 담당 교사들이 캠프에 관련된 퀴즈 대회(골든 벨) 및 장기 자랑 대회를 계획하였다. 캠프의 성격을 설명하는 디자인을 삽입한 단

체 티 제작도 역할 분담을 맡은 교사가 디자인하여 제작하였다.

2. 캠프 결과에 대한 분석

가.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

(1) 자기 주도적 계획에 따른 답사 활동

답사 지역이 예산 수덕사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충남이 아닌 전라도 지역을 답사하였기 때문에,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처음 방문하는 지역이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캠프 기간 동안 매우 흥미롭게 답사에 임하였다. 또한 학생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연구 및 산출물 제작 등에 대해 캠프 전에 계획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준비한 학생들은 동기 부여가 되어 있었으며, 메모, 열람, 인터뷰, 사진 등의 방법으로 열심히 기록하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캠프 후 설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답사 장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복수 응답 가능 문항임), 40%의 학생이 자신의 프로젝트 주제와 관련된 장소를 적었고, 50% 이상의 학생들은 전주 한옥 마을을 자신의 주제와 상관없이 기억에 남는 답사 장소로 적었다. 전주 한옥 마을에서는 4시간의 학생 자유 답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는데, 학생들은 관광 안내소에서 지도를 구하고, 미리 자신이 설정한 조사 계획대로 그 지역 일대를 조사하였는데, 스스로 계획하여 답사하였기 때문에 더욱 좋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 자율적, 자기 주도적 체험이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다.

(2) 인지적 발달 및 사회적·정서적 발달의 장으로서의 캠프

캠프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한 달에 2~4회만 만나서 공부하는 영재 학급의 친구들과 교사들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사귀고 이해가 깊어지며 또한 다른 영재 학급의 친구들과의 사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먼저는 자신이 속한 영재 학급의 친구들과 교사들과의 더 깊이 사귀는 것이었다. 어떤 학급은 ‘한 학기에 한 달씩 교사가 순번을 정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학생과 교사간의 관계가 소원하다’고 보고하였다. 2주에 한번 씩 만나는 영재 학급의 경우에 교사가 학생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속적으로 3일을 함께 교사와 영재 학급 친구들과 생활하고 캠프에 참여함으로써, 한 학기 동안 간헐적 만남으로 인한 심리적 소원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캠프는 영재 학생들이 학급의 다른 동료 학생들과 심리적으로 공감하며,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와주며, 이런 심리적 지지와 공감대는 남들과는 다른 생각이나, 때론 엉뚱한 아이디어도 스스로없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저자가 속한 한 영재 학급 중, 유난히 학생들의 참여 및 발표가 저조한 학급이 있었다. 영재 학급의 구성원들의 성향 및 깊이 있고 어려운 수업 내용으로 인해, 열광적이며 적극적인 모습이나 활발한 발표를 볼 수 없는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 반의 캠프 설문 평가에서 한 학생은 ‘캠프를 통해 친구들과 선생님을 사귀었기 때문에, 다음 학기부터는 수업 시간에 자신 있게 발표하며,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다. 이 설문은 학생들은 자신이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혹은 틀리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친밀함이 없을 때는 더욱 이러한 부담의 벽을 뛰어 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캠프 기간 중 이동거리가 많았고, 학급별로 버스를 타고 많은 시간을 이동해야 하였기 때문에, 캠프의 프로그램에서 다른 영재 학급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계획만큼 쉽지는 않았다. 레크리에이션인 골든 벨 게임과 장기 자랑 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볼 수 있었다. 설문에서 30%의 학생들의 타 학급 영재 학생들과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토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제공의 부족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른 지역에 있는 영재 학생들과 혼합 학급, 토론 대회 등 다른 영재 학급의 학생들과 함께 사귀며 도전과 격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를 말해주는 설문 결과였다.

(3) 교사들 간의 정보 교환의 장으로서의 캠프

인문 영재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은 당일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당일의 프로그램 정리 및 다음날의 프로그램 내용들을 점검하는 회의 시간을 가졌다. 모임 후에 교사들은 모여서 영재 학급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고충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다. 교사들의 공통적 고민은 첫째 영재 학급 내에 존재하는 큰 편차였다. 학생들의 인지적 수준의 편차가 일반 학급보다 더 크게 존재하는 영재 학급 내에서 20명의 학생들의 개별 수준, 속도, 필요를 어떻게 맞추면서 교육을 할 것인지가 가장 어렵다고 교사의 고충을 이야기 하였다. 둘째, 학생들의 동기 부족이다. 영재 교육이 무엇인지, 인문 영재 학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흥미나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에 의해 시험을 보고 영재 학급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흥미가 없거나, 학교 수업이외에도 학원 등에 학생들이 할애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영재 수업도 학원의 하나처럼 느끼고 부담스러워 하여, 동기 부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 영재 교육에 대한 교사의 지식 부족이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인지적 필요를 맞추어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영재 교육에 대한 교사 자신의 이해 및 지식이 부족하여 느끼게 되는 한계를 이야기하였다. 교사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한 개인의 자질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개인 문제이기 보다는 다른 교사들도 경험하고 고민하는 공통의 문제였기 때문에 한국 영재 교육의 현실에서 가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간주되어진다. 국가 정책으로 일정 수의 학생을 선발하여 영재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재아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필요, 영재아에 맞는 교육 과정, 선발 방법 등 영재 교육에 대한 전반적 이해나 지식이 없이 교사들이 영재교육 현장에 투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사들은 서로 좋은 교수 방법이나 커리큘럼, 지속적인 영재 교육에 대한 정보의 공유, 지속적인 재교육과 피드백을 원하였고, 이런 캠프가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다.

(4) 시설 및 지원이 필요한 교육과정으로서의 캠프

연합 캠프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대규모의 인원을 수용하면서 캠프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찾는 것은 큰 숙제였다. 특히 답사로 인해 매일 다른 숙소를 구한다는 것은 어려웠다. 특히 지방의 청소년 단체를 위한 기숙장소는 낙후되거나 적은 인원만을 수용할

규모였다. 참여 학생 수만 200명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답사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숙소나 최근에 지어진 숙소 대신에 1시간 이상을 이동하여 참여하는 인원수에 맞는 숙소를 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숙소의 거리, 편의 시설보다는 인원수 수용이 가능한 곳이 최우선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는 만족도가 5점 척도에서 중앙치가 4점으로 높은 편이지만, 개선점을 묻는 항목에서 50% 이상의 학생이 숙소에 대해 언급을 하였다. 연합 캠프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좋은 시설을 가진 숙소를 정하는 것이 인문 영재 연합 캠프가 지속될 수 있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나. 학생 및 교사 설문 결과 분석

(1) 학생 설문 결과 분석

학생 및 교사들에게 캠프에 대한 설문을 캠프 마지막 날 오후에 실시하였다. 설문에 학생 201명, 교사 23명이 응답하였다. 캠프 전체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5점 리커드 척도(1: 매우 불만족~5: 매우 만족)로 평균 3.58점이며, 중앙치는 4점이었다. 캠프를 위한 학생 개별 사전 준비 시간은 평균 8시간 15분이지만, 중앙치는 3시간으로 나타났다. 극단치 5%를 제거한 평균은 6시간으로 나타났다. 74%의 학생들이 프로젝트의 주제를 자신이 선정하였으며, 부모님과 상의하여 주제를 선정하였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3%에 해당하였다. 친구들과 주제를 선택한 학생도 있었으며(1.5%), 주제 선정에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는 학생도 있었다(1%). 대부분의 학생들이 캠프의 취지에 맞게 자기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mu=4.2$) 및 흥미($\mu=3.96$)에 있어서 학생들은 높은 기대 및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프로젝트 계획 과정에서 교사의 피드백을 받았다는 학생은 전체의 55%이며, 21%의 학생이 교사의 피드백을 조금

<표 1> 영재 학급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설문 문항

		<i>Sum of Squares</i>	<i>df</i>	<i>Mean Squares</i>	<i>F</i>	<i>Sig.</i>
캠프준비정도	Between Groups	19.738	8	2.457	2.736	.00
	Within Groups	171.348	190	.902		
	Total	191.085	198			
준비 시간	Between Groups	5,900.870	8	737.609	5.084	.00
	Within Groups	27,710.159	191	145.079		
	Total	33,611.029	199			
영재교육기간	Between Groups	27.663	8	3.458	6.708	.00
	Within Groups	96.916	188	.516		
	Total	124.579	196			
캠프만족도	Between Groups	27.316	8	3.414	5.352	.00
	Within Groups	121.227	190	.638		
	Total	148.543	198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성별이나 학년에 따른 캠프 만족도에 있어서의 차이는 없었지만, 영재 학급 간에 만족도의 차이가 있었다($F=5.352, p<.001$). 영재 학급 간의 차이는 캠프에 대한 만족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캠프 준비 정도($F=2.736, p<.01$), 투자 시간($F=5.084, p<.001$), 영재 교육을 받은 기간($F=6.708, p<.001$)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었다(표 1 참조).

차이를 보이는 학생들의 변인 중 캠프 준비 시간 및 캠프 준비 정도만이 캠프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재 학급 간에 만족도 차이는 학생이 영재 교육을 받은 년수와는 상관없이 캠프의 준비 정도 및 학생들이 실제 투자한 시간과 관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교사의 피드백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캠프 및 캠프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사의 피드백 정도에 대한 9개의 영재 학급들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6.322, p<.001$). 영재 학급들 간의 차이의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개인적인 영재 교육받은 년수가 캠프의 만족도 차이를 가져왔다고 보기보다는 학생들이 얼마나 캠프를 위해 사전에 준비하였고, 그 준비에 대해 교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및 캠프 답사지에 대해 기대 및 흥미를 가지도록 하였느냐에 의해 만족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 가지는 기대는 차이가 없이 모두 높았다. 피그말리온 효과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교사의 기대가 학생의 학습 성취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도 있지만, Goldenberg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뿐 아니라, 교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돕는 행동을 하여 주었느냐가 학생들의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양용철, 2007, 재인용),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성취 만족이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돕는 영재 교사의 피드백 행동이 학생 성취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캠프 만족도와 캠프 준비 정도 간의 상관관계

		캠프만족도	준비정도	투자시간	영재교육정도
캠프만족도	Pearson Correlation	1	.163*	.190*	.052
	Sig.(2-tailed)		.022	.007	.474
	N	199	.197	198	19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2) 교사 설문 결과 분석

참석한 교사 중 24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평균 교직 경력 년 수는 9.4년이며, 영재 교육 경력 년 수는 1.1년이었다. 영재 교사 연수 정도를 보면, 38%의 교사가 영재 교육 기초 연수 과정을 받았으며, 25%는 심화 연수를, 4%는 전문가 연수 과정을 받았다. 33.3%의 교사는 기초 연수 과정을 받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영재 캠프에 참여한 경험은 평균 1

회로 조사되었다. 약 17%의 교사가 영재 교육과 관련된 석사 학위를 받거나 석사 교육 과정 중이며, 13%의 교사가 박사학위를 받거나 박사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0%의 교사는 영재 교육에 대한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영재 교육에 대한 학문적 경험을 가지지 않았거나, 또는 최소한의 기초 연수도 없이 일반 교사들이 영재 교육에 투입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재아에 대한 이해 및 이들의 특성 및 필요에 맞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영재 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 주고 있다.

영재 교육 연수과정에서 심화나 전문가 연수 과정을 받은 교사와 받지 않거나 기초 연수만을 받은 교사들 간에 있어서 캠프를 위한 사전 준비 정도(인터넷으로 자료 조사해 보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정도에 따른 4집단의 차이를 두 집단적으로 대비하였을 때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t(20)=-2.165, p<.05$). 심화나 전문가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그런 과정을 받지 않은 교사들보다 적극적으로 캠프 내용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영재 교육 연수에 대한 교사들의 차이는 학생들의 프로젝트 설계 및 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주도성을 허용하는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데($F=3.278, p<.05$), 연수 경험이 없는 비연수집단과 전문가 과정을 마친 교사 집단 대 기초, 심화 연수를 받은 연수 집단의 대비에서 학생들의 주도성 허용 정도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20)= -2.607, p<.05$). 즉 비연수·전문가 연수 집단(영재 연수를 받지 않은 교사와 전문가 연수를 받은 교사)이 기초·심화 연수 집단(영재 교육 기초 연수나 심화 연수를 받은 교사)에 비해 학생들의 주도성을 덜 허용하였다. 영재 교육에 대한 이해의 배경이 적은 교사들이 영재 교육을 전통적 일반 학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본 연구의 전문가 집단에 속한 교사는 4명으로 적은 수로 인한 표집 오차일 수도 있음으로 좀 더 많은 표집수로 된 재연구가 필요하다.

<표 3> 교사 연수 경험 정도에 따른 학생 주도성 허락 정도에 대한 변산 분석

	<i>Sum of Squares</i>	<i>df</i>	<i>Mean Squares</i>	<i>F</i>	<i>Sig.</i>
Between Groups	3.736	3	1.245	3.278	.042
Within Groups	7.597	20	.380		
Total	11.333	23			

영재 교육 연수 정도에 따른 교사 집단의 영재아에 대한 인식 및 교육 방법에 대한 태도 차이는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대한 기대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각각 $t(20)= -2.697, p<.01, t(20)= -2.224, p<.05$). 캠프가 영재 학생들에게 인지적 발달 기회를 제공할 것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교사들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지만, 캠프가 다른 영재아들과의 사귀, 영재아들이 사회적 지지, 자존감, 자신감등 정서적 발달의 기회를 제공할 것에 대한 기대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표 4> 영재 캠프에 대한 영재 교육 연수 경험 정도에 따른 집단 간 대비

		Contrast	Value of Contrast	Std. Error	t	df	Sig (2-tailed)
인지발달	Assume equal variance	1	-.0972	.88224	-.110	20	.913
	Does not assume equal	1	-.0972	.47995	-.203	15.506	.842
사회발달	Assume equal variance	1	-1.9028	.70554	-2.697	20	.014
	Does not assume equal	1	-1.9028	.36866	-5.161	18.987	.000
정서발달	Assume equal variance	1	-1.5694	.70554	-2.224	20	.038
	Does not assume equal	1	-1.5694	.41809	-3.754	10.666	.003

영재 교육 연수나 영재 교육의 경험이 많은 교사 집단은 캠프가 영재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재 캠프에 대한 이해 차이는 영재 및 영재 교육에 대한 이해 차이에서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영재 교육에 대한 교사의 연수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V. 2010년 인문 영재 연합 캠프

1. 준비 과정

가. 2009년의 학생, 교사의 설문을 반영한 캠프 계획

2회째 실시된 충남 인문 연합 캠프는 “법과 정치 따라 잡기”라는 주제로 2010년 8월에 충남의 한 대학에서 2박 3일 기숙형 캠프로 실시되었다. 충남에 있는 12개의 인문 영재 학급에서 초등학생 116명, 중등학생 50명, 영재 학급 교사 25명이 참석하였다. 2009년 캠프가 답사 중심이었다면, 2010년의 캠프는 2009년 학생들의 설문 의견을 반영하여, 대학의 기숙사에 머물면서, 대학 내의 기숙사, 강당, 강의실, 컴퓨터실 등 제반 시설을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개인별 프로젝트 중심의 연합 캠프라는 큰 틀은 유지하면서, 심화 수업을 강화하였으며, 주제와 관련된 견학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캠프의 목적

2010년 캠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주제 심화 수업을 통한 인지 발달
- 개별 프로젝트를 통한 연구 능력 계발
- 사회적·정서적 발달 기회 제공
-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계발
- 타 영재 학급 학생들과의 교류
- 인문 영재 교사들 간의 정보 교환
- 양질의 모델링 수업 개발

대부분의 목적은 2009년과 유사하지만, 2010년 캠프에서 강화된 목적은 주제 심화 수업을 통한 인지발달과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 개발이다. 법과 정치의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구체적이며 정확하게 이해하고, 충돌하는 이견들을 법과 정치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토론, 전문가와 만남, 관련 기관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분석, 비판, 종합하는 능력을 길러,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이다. 2번의 공식적 모임과 이메일을 통해 참여 영재 학급 교사들과 캠프 준비를 함께 하였다. 법 전공을 한 수석 교사를 중심으로 캠프 심화 교육 과정 교재를 사전에 제작하였고, 레크리에이션도 교사 2명이 맡아서 준비하였다. 학생들은 캠프 전에 내용을 공부하면서 개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캠프 후 10월 초에 프로젝트 심사를 하도록 계획하였다.

2. 캠프 결과에 대한 분석

학생들의 캠프의 만족도는 4.3, 교사의 만족도는 4.5로 모든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향상이 되었다. 2010년의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특성과 평가는 관찰과 인터뷰를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가.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 제공

입법과 사법, 행정의 삼권과 관련되어 학생들이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전문가들과 만나 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전문가와의 만남 기회 제공으로 법대 교수의 강연 ‘말랑말랑한 법 이야기’, 변호사와 함께 푸는 “솔로몬의 선택”, 고등법원 방문과 재판 진행 참관 에서는 ‘판사와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전문가들에게 질문하고, 이들의 시각에서 보는 법 이야기를 청강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계기를 제공하였다. 30명 또는 100명의 집단 튜터링의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개별적이며 지속적인 튜터링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도전감을 제공하겠지만, 현실적 상황에서 집단적 튜터링을 포함하였다는 것은 의미 있다고 하겠다.

나. 토론을 강화한 학생 참여적 캠프

각 영재 학급에서 대표로 선정된 학생들이 참여한 “사형제”에 대한 찬반 토론 대회를 통해, 학생들은 인권, 정의, 공평에 대해 비판적, 논리적, 설득적 사고를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기회를 가졌다. 토론 대회는 다른 영재 학급 학생들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 하였다. 토론 대회는 학생들에게 토론의 재미를 주어, 토론 대표로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 은 2학기 수업에서 토론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다. 교사의 적극적 참여 및 다른 영재 학생들과의 교류

초등학생은 입법 중심으로, 중등학생은 사법 중심으로 워크숍 교재를 법 전공 수석 교사와 영재 담당 교사가 캠프 전에 제작하여 배포하여 참여하는 교사들이 수업을 캠프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용 워크숍 교재는 캠프 전에 제공되었고, 교사가

캠프 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용에 대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은 주어졌지만, 수업 운영은 교사에게 전적으로 맡겨져서 자율적으로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가 한 워크숍 내용을 준비하여 수업을 1~2회 정도 진행하였다. 워크숍 수업은 초등반과, 중등반으로 분리되어 90분 수업으로 3회 실시 되었다. 각 영재학급에서 무작위로, 무학년으로 반을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10명 정도로 구성된 3회의 워크숍 수업에서 각 영재 학급 선생님들은 자신이 준비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캠프 전 교사는 3개의 주제 차시 중에서 자신이 지도할 차시를 선정하였다. 한 영재 교사는 저자와의 개인적 대화에서 ‘다른 선생님과 비교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였다’고 하면서 ‘영재 교육 연수에서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보는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캠프가 이런 기회를 제공해서 더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하였다. 워크숍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른 영재 교사나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도전과 긴장감을 주는 시간이었다.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무학년은 우려보다는 좋았다는 평을 학생들이나 교사들로부터 받았다. 지역 간, 학년 간, 학생 개인별 차이가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도전을 주었다고 점심을 먹으면서 학생들은 저자에게 이야기하였다.

레크리에이션은 대행 기관에 위탁하는 대신, 캠프에 참여하는 교사 2명이 담당하였다.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준비 과정에서 담당 교사는 변호사와 함께,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한 법 문제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문제들을 모든 학생이 참여하여, 퀴즈 형식으로 푸는 프로그램으로, 캠프의 성격 및 주제를 일관되게 하였다. 또한 변호사가 레크리에이션에 함께 참여하여, 각각의 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프로그램 내내 지속시켰다. 영재 캠프 프로그램이 일반 학교의 프로그램에서 실시되는 위탁 레크리에이션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던 선생님도 본 캠프의 독특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진행 후 만족을 보였다. 기존의 캠프에서 실시되는 형태로 또는 상업적 대행업체에 프로그램을 맡기는 형태의 레크리에이션보다는 영재 학생의 독특성을 고려하고 영재 교육의 연장성상에서 영재 캠프의 한 프로그램으로 이해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라. 개인별 프로젝트

캠프 전에 개인별 프로젝트를 위한 필독 도서 및 관련 동영상을 공지하여서, 학생들이 관심 가는 주제를 정하고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별 프로젝트는 소논문 형태로 작성하여 캠프 후 10월 초에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근거 자료 제시 및 인용 방법 등 형식을 갖춘 논문을 학생들이 스스로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심사는 참여 영재 학급당 한명의 교사가 참여하여 실시되었다. 선정된 학생들 논문의 예로 ‘낙태’에 대한 여성 인권 측면에서 저술한 글이 있었고, 한 논문은 태아의 인권 측면에서 낙태에 대해 조사한 글이 있었다. 자신의 가족이 사기 전세를 당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법에 대한 조사한 초등학생의 글과 학생 인권에 대해 4개 중학교의 150명 학생들을 설문 조사 한 후 엑셀로 분석하여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생 인권에 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심사

후에 한 영재 학급 지도 교사는 ‘2년 연속으로 산출물을 제작하는 경험이 학생들에게 학문적 틀과 연구자의 틀을 배우도록 한다’고 생각하며, ‘2년 연속으로 산출물을 제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의 산출물의 경우, 2009년보다 2010년도 산출물이 눈에 띄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마. 견학

캠프 주제와 관련된 견학은 대전 지방 법원을 방문하여 재판 과정 참관, 판사와의 대화, 솔로몬 파크에서의 모의국회 및 모의재판 참여, 충남 도청 및 의회, 대전 정부 청사 탐방 등을 하였다. 참여 인원이 많은 관계로 3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각의 탐방 장소에서 견학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팀도 몇 개로 소그룹으로 분반을 하여, 가능한 한 모든 학생들이 견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바. 개별 영재 학급 시간

각 영재 학급의 교사와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첫날 4시간을 배정하였고 매일 저녁 프로그램에서 1시간씩 반별 시간을 배정하였다. 이 시간은 학급의 필요를 따라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화, 운동, 요리, 답소 등 각 학급이 선정한 내용들로 시간을 활용하여, 영재 학급 내에서 교사나 학생간의 거리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연합 캠프 속에서 개별 학급의 필요성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VI. 충남 인문 영재 캠프의 미래 방향성

2박 3일로 실시된 충남 인문 영재 연합 캠프는 수학이나 과학 인문 영재 학급에 비해 적은 수로 존재하는 인문 영재 학급이 함께 연합하여 캠프를 계획, 운영했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하겠다. 또한 2회에 걸쳐 연속적인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설문이나 교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보완점을 수정하면서 참여 학생이나 교사들의 만족도가 향상되어진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충남 인문 영재 캠프는 학생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학생 주도적 캠프, 연구 능력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제작, 인문적 시각을 지닌 리더십 개발,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구성(심화 수업·견학·레크리에이션·토론 대회·전문가와와의 만남), 영재 교육 수업 모형을 위한 교사간의 상호 정보 교환 및 실험의 장, 영재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 기회 제공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영역의 영재 교육 캠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2년의 캠프 운영 및 평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영재 캠프가 나아가 할 방향을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필요에 맞춘 학생 중심의 캠프가 필요하며, 이것이 캠프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캠프는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 흥미 등에 따라 내용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일방적인 내용보다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가

질 수 있고, 교사와의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Freeman, 2002).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지적 도전감과 흥미를 지속할 수는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교사의 피드백을 제공하며, 또한 설문이나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캠프를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들이 캠프에 반영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캠프는 교사 및 영재 학급 동료들과 지적 연결 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통해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적 지지 및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영재아는 연령이 동일하다는 사실만으로 일체감이나 동료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함께 문제를 토론하고, 도전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교사나 친구들에게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Freeman, 2002). 특히 영재 학생들은 교사의 행동과 태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Croft, 2003). 영재 캠프는 바로 이런 사회적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어떤 의견이든 수용되며, 지적 자유감을 허용해 주는 분위기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학생들 간의 심리적 거리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심화 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함으로써, 영재학생 뿐 아니라, 영재 학급과 영재 교육 커리큘럼이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어야 한다. 또한 숙진, 전문가와의 일대일 멘토링 또는 집단적 멘토링 등 다양한 경험의 장 및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영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캠프 대행업체에게 영재 학생들의 귀한 시간을 맡겨서는 안 된다. 캠프는 단기적이며, 특별 프로그램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조화된 영재 수업에서는 제공하지 못하는 보완적인 내용을 가지면서도 고차원적인 사고 과정, 사회적 지지, 심리적 지지, 새로운 경험의 장을 캠프 프로그램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영재 캠프의 차별적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영재 캠프는 영재 교사들이 함께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장 및 영재 교육에 대해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영재 교육에 대해 받은 단기 연수가 영재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및 태도에 차이를 가져온 것이 교사의 설문 결과에 나타났다. 외국의 경우, 영재 교육을 받은 교사와 영재 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의 교수 방법, 영재아에 대한 태도, 수업 분위기에서 차이가 있는 연구가 있다(Hansen & Feldhusen, 1994). 우리나라의 경우 영재 교육에 있어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이 전문화되어 있지 않는 현재, 영재 캠프는 영재 교육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보완해 주며, 연수 받은 내용을 함께 실습하고, 검토하는 장이 될 수 있으며, 교사들이 영재학생에 대한 이해, 영재 교육의 새로운 방법, 실제적 교수, 프로젝트 운영 등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수 있다.

다섯째 캠프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이다. 설문,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캠프에 참여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평가를 실시하여, 캠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캠프 자체의 평가 뿐 아니라, 다른 캠프와의 내용 비교, 효과성 비교 등을 통해 캠프를 발전적 방향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학, 과학 영역에서의 캠프 내용 비교 및 다른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캠프들 간의 비교 연구는 개별 캠프만이

가지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특성들을 발견하게 할 수 있다. 평가의 과정을 가짐으로써, 캠프 프로그램을 발전적으로 보완,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섯째 캠프를 위한 재정적, 교육적, 행정적 지원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영재 교육 및 영재 캠프의 내용 및 교수는 영재 교육 담당 교사 및 기관장의 자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더 좋은 인문 영재 프로그램 및 영재 캠프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는 영재 교육 연구자와 교사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체계화되도록 하는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행정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영재 캠프는 단기간의 특별 프로그램이다. 단위 영재학급 또는 교육청 및 대학교의 영재원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할 수 없는 다른 내용,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캠프를 활용한 프로그램은 영재학생들에게 재능 계발과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제공하며, 전문가 및 또래의 다른 영재아들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캠프 프로그램의 개발은 일반 영재 학급의 교사 개인별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영재 교육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영재 교육 분야의 대학 교수, 연구원, 대학원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도교육청 단위의 행정적 지원이 함께 수반될 때 좋은 캠프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된다.

보다 나은 연구를 위해서는 인문 영재 캠프 및 다른 영역의 영재 캠프들 간의 비교 연구가 필요하며, 개인적으로는 영역의 구별이 없는 통합 캠프도 학생들에게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연구 뿐 아니라,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재 캠프들 간의 비교 연구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Freeman, 2002), 앞으로 국내 캠프 프로그램 비교 연구와 국가 간 캠프 비교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권치순, 김재영, 김남일, 임채성, 전영석 (2007). 초등 과학 영재 캠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초등 과학 교육*, 25(50), 522-531.
- 유홍준 (1993).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1*.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유홍준 (1993).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2*.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유홍준 (1993).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 3*. 서울: 창작과 비평사.
- 이정규, 김미숙, 박춘성, 이승희, 이행은, 김아름, 최정례 (2007). *영재 학급·영재 교육원 운영 실태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CR 2007-67.
- 장상호 (1982). 과학주의의 지양. *교육개발*, 4(4), 13-16.
- Bellamy, A., Gore, D., & Sturgis, J. (2005). Examining the releva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within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Electronic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al Psychology*, 63(2), 53-78.
- Colangelo, N. (1991). Counseling gifted studies. In N. Colangelo, & G. A. Davis, *Handbook of*

- gifted education (pp. 273-284). MA: Allyn and Bacon.
- Croft, L. J. (2003). Teachers of the gifted: Gifted teachers. In N. Colangelo, & G. A. Davi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558-571). MA: Allyn and Bacon.
- Dricoll, M. P. (2007). 수업 설계를 위한 학습 심리학 [양용칠, 역]. 서울: 교육 과학사. (원본 발간일 2005).
- Erlandson, D. A., Harris, E. L., Skipper, B. L., & Allen, S. D. (1993). *Doing naturalistic inquiry: A guide to method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Feldhusen, J. G. (1991). Saturday and summer programs. In N. Colangelo, & G. A. Davi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197-208). MA: Allyn and Bacon.
- Freeman, J. (2002). Out of school educational provis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around the world. In F. J. Mönk, & H. Wagner, *Development of human potential: Investment into our future* (pp. 209-215). Bad Honnef, Germany: Verlag Karl Heinrich Bock.
- Hansen, J. B., & Feldhusen, J. F. (1994). Comparison of trained and untrained teachers of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8(3), 115-121.
- Kolloff, P. B., & Moore, A. D. (1989). Effects of summer programs on the self-concepts of gifted children. *Journal of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2(4), 268-76.
- Olszewski-Kuilius, P. (2003). Special summer and Saturday programs for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219-228). MA: Allyn and Bacon.
- Olszewski-Kuilius, P., & Lee, S. Y. (2004). Parent perception of the effects of the Saturday enrichment program on gifted students' talent development. *Roeper Review*, 26(3), 156-165.
- Plucker, J. A., & Stocking, V. B. (2001). Looking outside and inside: Self-concept development of gifted adolescents. *Exceptional Children*, 67(4), 535-548.
- Rinn, A. N. (2006). Effects of a summer program on the social self-concepts of gifted adolesc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7(2), 65-75.
- Spradley, J. P. (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York: Holt, Rinehart & Winsston.
- Stanley, J. C. (1996). In the beginning: The study of mathematically precocious youth (SMPY). In C. P. Benbow, & D. Lubinski, *Intellectual talent: Psychometric and social issues concerning intellectual talent* (pp. 225-235).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Subotnik, R. F. (2005). Out of school science programs for talented students: A comparison. In P. Csermely, L. Lederman, & T. Korcsmás, *Science educations: Best practice of research training for students under 21* (pp. 59-65). Amsterdam: IOS Press.
- Summer institute for the gifted (2010, March 22). Retrieved March 22, 2010, from <http://www.giftedstudy.org/residential/utaustin/index.asp>
- Youth adventure program (2011, October 15). Retrieved October 15, 2011, from <http://www.youthadventureprogram.com/>

= Abstract =

Developing Students' Self-Directed Camp Programs for Gifted Students

Lee, Kyung Sook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is a report about the two summer camps of 2009 and 2010, which were held by some gifted classes of Liberal Arts areas in Chungnam Province. The students' self-directed methods, making an own project topic and an outline plan for that by students themselves before the camp, raised up the students' satisfaction of the camp effectively. Staying with their peer students and teachers for 3 days gave the gifted students a chance for relationship, self-confidence, and self-sufficiency. These joint summer camps provided the students with cognitive development, motivations and a chance to meet other gifted students. Teachers' preparation for the camp, their concrete feedback to each student's project, and students' time spending on one's own camp project were correlated with the students' satisfaction of the camp program. Experience of teacher training in gifted education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understanding gifted students and expectations of students'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hroughout and after the camp.

Key Words: Project, Self directed method,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Teacher's feedback, Experience of teacher training in gifted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11년 10월 28일
수정 원고접수: 2011년 12월 13일
최종 게재결정: 2011년 12월 26일